

학교생활

학생부 항목에서 ‘미기재’ ‘미반영’은 무슨 뜻인가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항목 간소화로 비교과 활동이 많이 줄었는데요. 큰아이 때와 달리 학생부 항목에 미기재, 미반영이라고 안내돼 있네요. 미기재, 미반영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이는 관련 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강혜선(49·서울 서초구 서초동)

‘미기재’는 적지 않는 것, ‘미반영’은 적긴 하지만 대입 자료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진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기재는 학생부에 아예 적지 않는 것이고, 미반영은 학생부에 적긴 하지만 대입 자료로 전송하지 않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진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 대입부터 학생부 주요 항목이 본격적으로 간소화됩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 활동 특기 사항 등이 미기재 영역이며 영재·발명 교육 관련 내용,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 활동, 진로 희망 분야,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상황 등이 미반영됩니다.

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미기재·미반영 영역의 구분은 사교육 유발과 교육 격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항목 모두 입시에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학생부 간소화가 학교생활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규 수업에서 이뤄진 독서 활동은 교과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 학습과 교과 연계 활동이 모두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라면 종합 전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1 역시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

MORE TIP

타임교육 입시연구소 이해웅 소장은 “학생부 간소화로 오히려 교과와 학교생활이 더 중요해졌다. 1학년 때는 고교 탐색 시기이니 수업에 집중하고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다. 미기재·미반영 활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여부를 떠나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줄어든 만큼 면접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비록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은 뜻깊다”고 강조 합니다. 취재 이지연 리포터 judylee@naeil.com

교과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3 학부모입니다. 성균관대의 202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니, 올해 신설된 교과 전형에서 일반선택 과목은 정량 평가하고 진로선택 과목은 정성 평가한다고 합니다. 교과 전형은 과목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정량 평가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일부 과목을 정성 평가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_김산정(51·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지원자의 노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교과 전형(학교장 추천)은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은 정량 평가하고 80%를 반영합니다. 성취도로 평가되는 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은 정성 평가하고 20%를 반영합니다. 정성 평가 반영 점수는 학업 수월성 10점, 학업 충실성 10점입니다. 성균관대 김상혁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 노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성 평가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업 수월성은 과목 수준, 성취도,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비율 분포 등을 평가한다. 학업 충실성은 교과목 이수 현황을 확인한다. 진로 적성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교과별 위계에 맞게 과목을 이수했는지 평가한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확인해 학업 수행 충실도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교과 성적의 정량 평가가 80%라는 점에서 여전히 교과 성적이 중요한 전형입니다.

참고로, 동국대 교과 전형(학교장 추천)도 등급으로 평가되는 과목은 정량 평가해 60%를 반영하고, 성취도로 평가되는 진로선택 과목은 서류 종합 평가에 포함해 정성 평가 해서 40%를 반영합니다. 동국대 이재원 입학사정관은 “서류 종합 평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과 같다. 진로선택 과목, 공통 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의 세특 사항도 포함해 평가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지 않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최소화해 수시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성균관대와 동국대는 등급이 아닌 성취도로 평가하는 진로선택 과목의 취지를 살려 정성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학생들의 노력도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동국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교과 등급 간 점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40% 반영되는 서류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변별을 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